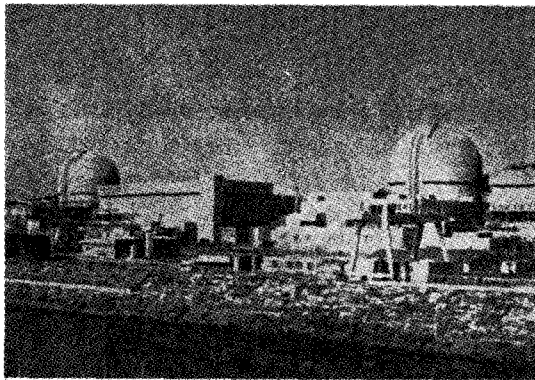


古里原子力發電所 1號機 設備改善工事 竣工式 거행

古里原子力發電所 1호기가 지난 1월 15日 大規模 設備改善工事に 들어간지 약 8개월만인 9月 2日 竣工式을 갖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힘찬 운전에 들어갔다.

國內 最初의 原子力發電所인 古里1호기가 지난 7月 20日로 뜻깊은 준공 10주년을 맞은데 이어 대규모 설비개선공사 준공을 갖게 되었다.

이날 韓鳳洙 社長은 치사를 통해서 世界에서 21번째로 原子力發電所 보유국 대열에 들어선지 10年만에 世界 10位의 科學韓國으로 성장하는데 古里 1호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규모설비 개선공사를 계기로 설비성능 유지는 물론 原子力의 安全性 확보에 만전을 기해 국가 번영과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記念式에서 韓鳳洙 社長은 有功 職員과 有功業体에 각각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原子力發電所의 中央制御室과 터빈 건물등을 돌아보며 운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공사는 6개월간의 개수공정 기간에 총 공사비 270億원과 연 인원 11萬 4,700명이 동원되어 복수기, 급수가열기 등 취약노후시설을 대폭 교체하였다.

국내외의 최신 장비와 기술진 그리고 施工法을 동원해 보수된 古里 1호기가 거듭 태어남으로서 平和의 에너지인 原子力의 모체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봉石油鑛區 개발 참여 油公에서 美·佛 합작 추진

(株)油公은 아프리카 가봉의 오암·마린石油鑛區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지난 8月 11日 油公은 美 紳社 등 외국 3개社와 함께 오암·마린鑛區에 참여하기로 결정, 최근 정부에 이 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이鑛區는 美 紳社 등이 1987年 1月 가봉과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물리탐사 단계에 있는데 年末경 探查井 굴착에 착수할 예정이다.

鑛區의 共同開發 참여지분은 美 紳社 35%, 佛 토틀社 25%, 美 해밀턴브러더스社 20%이며 油公은 20%의 지분을 갖고 1990年까지 800萬 달러의 개발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原油가 나올 경우 1日 2萬배럴 미만일 때는 개발 참여자가 68.5%, 2萬~3萬배럴은 45.3%, 3萬~4萬배럴은 40%, 4萬배럴 이상은 34%를 담당받아 배분량을 4개 개발회사가 지분별로 나누는 조건이다.

鑛山技術 印尼에 傳授 東原炭座에서 現場實習

大韓鑛業振興公社は 石炭鑛탐사 등 鑛山技術을 인도네시아에 전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訓練生 2名을 8月 4日까지 鑛山現場實習 教育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東原炭座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훈련을 받은 인도네시아 훈련생은 石炭探查분야와 鑛山安全분야로 구분하여 시추암 추조사, 지질조사, 구호훈련 및 보안장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韓國水資源公社 創立 記念式 水資源 專門機關으로 새로운 出帆

韓國水資源公社 創立 記念式이 '88. 6. 27. 10時 金漢鍾 建設部 次官, 李相熙 新任社長, 沈大平 忠南知事를 비롯한 各級 機關長 및 任職員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田 소재 水資源公社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그동안 水資源 開發, 新都市 開發 및 工業地 造成 事業을 하여 왔던 產業基地開發公社가 1987年 12月 4日 韓國水資源公社法이 公布되고 1988年 6月17日 同法 施行令이 制定됨에 따라 韓國水資源公社로 改稱되고 새로운 발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多目的댐을 건설하여 洪水와 가뭄을 없애고 生活, 工業, 農業用水의 供給, 水力發電 供給 등 보다 效率的이고 体系的인 水資源 專門 機關으로 出帆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精油 日産16萬배럴 増設 油公 현부지에 施設확장

(株)油公(社長 金恒德)은 石油 精製설비를 日産 16萬배럴 규모로 확장키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動力資源部에 제출했다.

지난 7月 7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油公은 現

精油공장의 부지내에 총 865億원을 투입하여 오는 1991년까지 原油처리 설비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油公은 現재 가동중인 1日生産 5萬5,000배럴(1배럴 159ℓ)의 설비가 건설된지 20년에 달해 가동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폐기하고 16萬배럴 설비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精製能力 증가는 10萬5,000배럴인 셈이다.

油公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증설을 추진할 경우 이 회사의 정제설비는 現행 日産 28萬배럴에서 39萬배럴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精油부문에서 京仁에너지가 10萬배럴, 雙龍精油가 15萬배럴을 증설할 계획에 있어 3社의 증설분은 총 41萬배럴로 現행 정제능력 79萬배럴의 52%에 해당된다.

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低油價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오는 1991年경의 石油 수요는 총 3億배럴로 1987年 실적 2億배럴보다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제설비의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精油施設 대폭 확장 京仁에너지 16萬배럴生産 계획

지난 6월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京仁에너지(社長 成樂正)는 국내 石油類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低硫黃油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原油 정제시설을 現재 1日生産 6萬배럴에서 16萬배럴로 10萬배럴을 증산하기로 하였다.

京仁에너지는 모두 2,600億원을 투입 仁川 現 공장 부지옆에 1日生産 10萬배럴 규모의 精油工場과 潤滑基油시설을 오는 1991年 12月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現재 국내 精油능력은 湖南精油가 日産 38萬배럴, 油公이 28萬배럴, 京仁에너지가 6萬배럴, 雙龍精油 6萬배럴, 極東精油 1萬배럴 등 모두 79萬배럴이고 年末에 極東精油의 6萬배럴 공장이 준공되면 85萬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原電에 대한 國民理解 심포지움 原子力産業會議에서

原子力産業會議는 지난 7月 20日 프레스센터 회의장에서 古里 原子力發電所 1호기 준공 10週年을 기념하는 原子力發電에 대한 國民理解 심포지움을 갖고 原子力 관계 각계 전문가의 논문발표 및 이에 대한 폭 넓은 토론회를 가졌다.

논문발표에 앞서 韓鳳洙 회장은 開會辭를 통해 지난 10年間 韓國의 原子力은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착실히 성장하여 우리나라 총 發電量의 50%가 넘는 電力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와같은 10年間의 성장을 기반으로 原子力에 대한 폭넓은 國民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논문발표자로 나온 프랑스 電力庁 선임연구원 피에르·베르테로(P. BERTHELOT)씨는 프랑스 역시 15年間의 原子力생산과정중 여러 정당 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현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에너지생산방법은 原子力이라는 것에 國民的 合意를 얻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石油, 石炭 등의 化石燃料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싼 값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原子力 뿐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原子爐 事故를 분석한 日本 原子力文化 振興庁 고문 尾崎正直씨는 소련의 체르노빌原電 사고를 분석하면서 이는 분명한 人災이지 原子爐 자체가 갖는 본질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체르노빌 사고는 만일 운전규칙대로만 운전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韓國에서의 原子力에 대한 國民理解라는 主題를 발표한 韓國일보 科學部長 李光榮씨는 실제로 原子爐가 科學的으로는 事故確率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만 國民이해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原子爐의 좋은 점 만을 홍보해온 데 기인하며 앞으로는 長短점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며 國民이 原子力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캐나다 原子力公社 부사장 R·베이유(R. VEILLEUX)씨, 韓國原子力産業會議 홍보부장 金積玉씨 등의 발표가 계속된 후 動力資源部 原子力課長 丁奎稔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原子力은 國民의 理解를 얻어 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中國原油 國際時勢보다 低廉 湖南精油에서 導入

湖南精油가 中國으로부터 첫 도입한 原油는 계약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다소 비쌌으나 2차분은 계약이후 국제原油價格에 대비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7월 말에 도입한 2차분 38만배럴의 導入價格은 배럴당 11달러 80센트로 계약할 당시만 해도 국제원유가격이 弱勢여서 좋은 여건이 되지 못하였으나 국제원유가와 대비할 때 2달러 이상 싸게 구입한 셈이 되었다.

한편 湖南精油의 거래선인 中國 支那石油의 國際部長이 최근 湖南精油의 精油施設을 돌아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光陽製鐵所 第2期 준공 粗鋼능력 年産 1,500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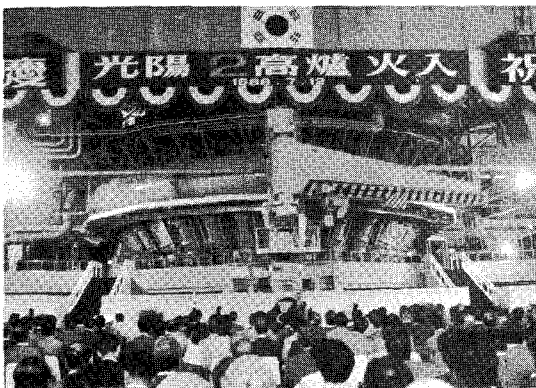
浦項製鐵의 光陽製鐵所 第2期 설비가 지난 7月12日 준공되었다.

이에따라 浦鐵은 年産 1,500萬톤의 製鋼능력을 확보, 日本의 新日本製鐵과 프랑스의 유지노 새실리社에 이어 世界 3位의 鐵鋼業체로 부상하였다.

浦項製鐵所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일관작업을 수행하는 光陽製鐵所는 製鋼 熱延工場 등 19개의 주설비와 27개 부대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內資 6,762億원, 外資 2億 3,637萬 달러를 투입하여 1年 10個月만에 완공하였다.

光陽 2期の 준공으로 우리나라의 粗鋼生産능력은 총 2,171만 8천톤으로 늘어나 世界 제8위의 鐵鋼大國으로 浮上하였다.

우리나라 鐵鋼産業은 지난 60年代 중반 까지만 해도 20萬톤 규모에 불과하였으나 1973년 浦項製鐵所 1期 설비를 완공한 이후 급신장을 계속, 15년 사이에 製鋼능력은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72년 22.7%에 불과했던 국내 鐵鋼自給度는 1982년 浦項製鐵所의 종합준공으로 83.9%로 높아졌다. 그후에 국내 鐵鋼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現在의 自給度는 77.7%에 머무르고 있다.

浦鐵은 준공이후 풀가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日本의 경우 지난 해 가동률은 66.6%, 美國은 78.9%에 불과해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1人當 生産量에서도 浦鐵은 年間 772톤으로 日本의 평균 588톤에 비해 3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浦鐵은 光陽 제 2기가 완공됨에 따라 1989年 3月 年産 270萬톤 규모의 제 3기 설비공사에 착공, 1991年 4月까지 완공해 국내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光陽 3기가 완공되는 1991년에는 우리나라의 粗鋼生産능력이 총 2,417萬 8,000톤으로 규모가 증가, 世界 7位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집트 시멘트稼動率 제고 韓國重工業 輸出擴大 전망

韓國重工業은 이집트에 시멘트工場 운전기술을 수출, 성공적으로 공장가동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아프리카지역 플랜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韓重은 이집트의 年産 100萬규모의 시멘트工場이 절반수준의 가동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집트政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86年 4月 이工場의 稼動率을 최저 50%까지 향상시키기로 하는工場의 운전 및 보수수준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계약만료 1년을 앞둔 현재 이미 86.4%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려 당초의 용역계약비 260만달러 외에 36만달러의 増産技術料를 받은데 이어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받고 있다.

韓重은 이번 시멘트工場의 운전보수기술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아 최근 알제리에서도 시멘트工場 진단기술자의 파견을 요청받고 협의중에 있다.

原電發電所 建設능력 보유 韓重 美機械學會서 評價合格

韓國重工業(社長 李匡根)이 先進企業과 마찬가지로 原子力發電所의 일괄도급에 의한 建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原子力發電所의 기계전기설치공사의 세계적인 品質認定證인 NA·NPT스탬프 등을 美國 機械學會(ASME)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실현 가능해진 것이다.

韓國重工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原電機械·電氣설치공사에 대한 品質의 安全 여부를 ASME에 의뢰 약 8個月에 걸친 현장답사, 공사수행능력, OA(사무자동화) 시스템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거쳐 品質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原子力發電所 건설 현장시공 및 조립부문에 대한 NA스탬프를, 건설부품의 현장제작부문에 대해서는 NPT스탬프를 각각 발급 받았다.

韓重은 이미 發電所의 核心機資材인 原子爐 및 터빈發電機 등 주요 기자재에 대해 국제적인 品質公認 스탬프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자재로 조립설치하는 공사의 品質까지 인정받음으로써 완벽한 品質의 原子力發電所 건설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解説]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코드를 제정 발행해 原子力發電所에 들어가는 모든 機資材 및 이의 설치공사에 대해 品質保證시스템을 認定해 주는 學會이다.

따라서 美國 및 캐나다의 각주와 도시에 설치되는 原子力發電所는 이 學會에서 발급되는 認定證과 스탬프가 없으면 品質面에서 객관적인 公認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韓重이 機電設置분야에서 받은 NA·NPT스탬프는 설치공사 자체의 品質을 인정받은 것으로 發電所 건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자체도 品質이 保證되어야 하지만 機電設置 공사의 品質도 정밀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創立 5週年 맞는 韓國가스公社 天然가스의 國民燃料化 추진

韓國가스公社(社長 文熙晟)는 創立 5週年을 맞아 8월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國際會議場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記念式을 갖고 유공직원을 표창하였다.

'87년초 平澤 LNG引受基地 및 供給設備 건설을 성공리에 끝내고 작년 한해 162만톤의 天然가스를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 및 發電用 燃料로 공급한 바 있는 韓國가스公社는 앞으로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營業활성화와 병행하여 國內가스 기술의 自立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에 '89년 11월 開院을 목표로 연구개발원을 建設중에 있으며, LNG의 냉열을 이용하여 액체산소·질소 및 알곤 등을 생산하는 공기액화분리사업과 배관이 매설되지 않은 地方道市까지 天然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탱크로리 출하설비의 건설을 推進중에 있다.

한편 韓國가스公社는 地方化時代에 부응한 전국토의 國民연료화를 위해 '88년 하반기에 전국 天然가스 공급 기본계획을 政府關係部處와 협의 확정하여 '89년부터 전국 주배관망 확장을 위한 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代替에너지 개발추진 韓國動力資源研究所에서

지난 6월 28일 韓國動力資源研究所는 代替에너지技術開發 政策審議會를 開催하여 1991년까지 400億원을 투자하여 太陽, 小水力 등 代替에너지 開發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太陽에너지 부문은 90년까지는 自然對流型 溫水給湯시스템을 개발하며 91년에는 自然採光技術도 확보한다.

太陽熱 溫水器의 보급은 年間 60億원의 외화 절약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전기구의 3분의 1이 太陽給水器를 사용하고 있다.

小水力發電은 이미 한국형 터빈시스템이 개발되어 5,000KW까지는 국내기술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연구팀은 6차 5年計劃 기간에 표준화된 小水力發電시스템을 보급할 방침이다.

水素에너지부문에서는 90年代 중반부터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술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다. 水素에너지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어 가정이나 차량에는 유력한 代替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볏짚 등과 같은 生物廢棄物(바이오매스)에서는 燃料用 알콜을 얻어 농촌에서 에너지를 自立하도록 추진하며, 도시에서는 可燃性 쓰레기를 처리 地域暖房에 응용할 방침인데 현재 쓰레기의 10%만 이용해도 年間 145億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極東石油株式會社 極東精油(株)로 상호 變更

極東石油(株)는 國內石油 소비추세 變化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남 서산군 대산면에 日産 6만 배럴의 原油 精製施設과 日産 3만 4천배럴의 중질유 分解施設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企業環境에 적극 對應하고 보다 未來 指向的인 企業 이미지 刷新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로 極東精油(株)로 상호를 變更하였다.

無災害 4次目標 2,080日 달성 韓國電力補修, 濟州사업소

지난 7월 2일 韓國電力補修(株)濟州事業所가 無災害目標 4배 달성 기념식장에서 노동부로부터 無災害 은탑과 달성장을 받았다.

고정환 소장을 비롯한 濟州事業所 72명의 직원들은 지난 82년 2월 1일부터 각종 계획공사 및 경상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사업소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 금년 5월 12일 無財害 4차 목표인 2,080일을 달성, 지난 7월 2일 記念式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濟州事業所의 눈부신 무재해달성 기록은 고정환 소장을 비롯한 전 사업소 직원들이 한데 뭉쳐 육지로부터 멀다는 등 지역적 특수성과 해안의 특수기상 여건, 그리고 發電設備의 산재 등의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여 이루어졌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한전 제주지사장, 勞動部 제주지방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지방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韓薰 社長은 이 자리에서 濟州事業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1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고, 그동안 특히 無災害 달성에 공이 큰 고정환 소장, 고정봉 한림내연 2차사업소장과 고윤철씨, 강권순씨에게 표창과 함께 5만원씩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特定研究結果發表會 개최 韓國科學技術院에서

科學技術處가 주관하는 國家主導 研究開發課題 전반기 발표회인 '87特定 研究 結果·發表會가 지난 7월28일 부터 29일까지 韓國科學技術院에서 개최되었다. 본 전반기 발표회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술 등 43個 研究課題의 研究結果 論文 78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교환과 課題別 研究結果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평가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研究結果 發表會는 금년이 2次年에 해당되며 國內 技術振興과 産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代替에너지技術 實用化 普及에 專門 管理機構 발족

代替에너지技術의 實用化 普及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기 위한 技術開發 專門管理機構가 지난달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 技術開發事業部로 발족되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지원 및 사업수행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국책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代替에너지 開發促進法에 의한 시행 및 관리상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과제의 선정, 연구결과와 평가, 사업의 조정 등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그 成果에 대한 實用化 事業 등을 망라하고 있다.

현재 국내 代替에너지技術開發의 기본 目標은 오는 2001년까지 代替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先進國의 기술 경쟁력성이 있는 기술을 실용화 시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代替에너지技術開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성공 가능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점 개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체제로 産業界와 學界, 研究機關 등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88올림픽 電力確保 다짐대회 韓國電力公社에서 거행

韓國電力公社는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에 차질 없는 電力을 확보하기 위한 다짐대회를 지난 9월 1日 韓鳳洙 사장과 이종완 노조위원장 그리고在京事業所의 電力確保要員, 회사직원 등 1,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다짐대회는 강박식 올림픽 事業支援室長の 경과보고에 이어 올림픽 電力確保要員을 대표해서 임태훈 과장이 電力確保 成功意志를 담은 宣誓를 통해 그 決意를 새롭게 하였다.

韓鳳洙 社長은 이날 訓示를 통해 사실상 그막을 올린 서울올림픽의 成功의인 개최 관건은 바로 완벽한 電力供給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3만여 韓電人은 그 名譽와 自尊心을 걸고 停電없는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다짐대회가 끝난 후 한전 전직원은 “손에 손 잡고” 를 부르며 全世界人의 가슴에 한민족의 雄志를 심어주는 올림픽이 되도록 다 함께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最新 金屬表面處理技術 세미나 에너지管理公團에서 개최

최근 金屬表面處理技術 세미나가 韓·佛 공동으로 8월 31일 에너지管理公團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金屬鐵鋼業체 및 관련 연구기관, 大學의 金屬工學科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에너지管理公團과 프랑스 에너지管理公社(AFME)가 공동으로 개최 하였다.

이날 발표된 主題는 「플라즈마 스프레이기술」, 「투명전도체 및 적외선 반사 금속 산화물 코팅」 등 2개 주제는 프랑스 金屬工業協會 Blandenet 신기술 자문관이, 「이온질화 處理技術」은 프랑스 Nitruvide사 Lebrun 부장이 發表하여 선진 기술을 소개했다.



제14회 테헤란 國際博覽會 李鳳瑞 動資部長官 參席

政府는 9月 12일부터 개최되는 제14회「테헤란」國際博覽會 개최를 계기로 李鳳瑞 동자부장관을 團長으로 하고 外務, 商工部 등 關係관으로 구성된 정부고위사절단을 「이란」에 파견키로 했다고 外務部가 9月 6日 오전 발표했다.

이란·이라크戰 종전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이번 각료급 使節團은 이란 체류중 이 博覽會 개막식과 「韓國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이란 政府의 고위인사들과 접촉, 우리나라의 戰後復舊事業 참여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外무부 당국자는 밝혔다.

韓國電力 韓鳳洙 社長 台灣電力 100週年 記念式 參席

韓國電力 韓鳳洙 社長은 台灣電力公司 초청으로 台灣電力 100週年 記念式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月 5日 出國, 9月 11日 귀국하였다.

韓鳳洙 社長은 이 記念式에서 “電氣 2世紀를 여는 電力事業者의 역할” 이라는 강연을 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現代엔지니어링(株) 事業規模 擴張 專務理事 昇進 發令

現代엔지니어링(株) (代表理事 鄭夏五) 는 종전의 現代重工業(株) 에서 管掌하던 엔지니어링 分野 業務를 흡수 통합하여 事業規模를 크게 擴張하였다.

이에 따라 現代엔지니어링(株) 의 從業員數도 1,400餘名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8월 1일부로 박노상, 박순명, 임성주 상무이사를 각각 전무이사로 昇進·發令하였다.

“不足을 이겨내는 슬기” 崔昌洛 前동자부장관 出刊

崔昌洛 前동자부장관은 2年 1個月間 動力資源部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의 좌담회, 간담회와 세미나에서 에너지문제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한데 묶어 “不足을 이겨내는 슬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8月 1日 講演集을 발간하였다.

京仁에너지 成樂正社長 韓國火藥그룹 副會長에

韓國火藥그룹(會長 金昇淵)은 지난 7月 20日 京仁에너지 代表理事 成樂正 社長을 그룹의 副會長으로 昇進 발령하였다.

한편 京仁에너지 社長職은 계속 兼職하게 된다.

韓國에너지研究所 9代 所長에 韓弼淳 博士 再選

韓國에너지研究所는 지난 8月 5日 제46차 臨時理事會를 개최하고 9代 所長에 韓弼淳 現所長을 再選任하였다.

資源經濟學會 會長에 李會晟 에너지經濟研究院長 選출

지난 달 新羅호텔에서 개최된 資源經濟學會 定期總會에서 제 2대 會長에 에너지經濟研究院 李會晟 院長이 選출되었다.

大韓石炭公社 人事

지난 7月 19日 大韓石炭公社에서는 本部長급 人事를 실시하였는데 管理·營業本部長에 金鍾承씨를, 生産·安全本部長에는 宋在奎씨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